

연차 내고 접속·과제... '부모 개학' 현실로

초등 저학년 온라인 개학 첫 날
전국 학생 540만명 원격수업
e학습터 접속장애 불편 여전
다자녀·맞벌이 가정 고충 커

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차 개학과 비교해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원격수업 플랫폼인 'e학습터' 접속이 되지 않고 영상이 끊기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여전했다.

이 같은 접속 장애는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이 원격수업을 듣기 시작한 1차 온라인개학 때부터 지속된 문제다. 사흘 전에도 EBS 홈페이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ID로는 로그인도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잇따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540만명 학생들의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주까지는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른바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적응하고, 고칠 부분은 고쳐 혼란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이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수업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등교개학이 언제 이뤄질지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등교개학은 일러야 5월 초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등교개학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들은 "온라인 개학 상황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추후에 있을 등교개학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



초등학교 1~3학년생들이 일제히 온라인 개학을 한 2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가정에서 1·3학년 형제가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이용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인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4차례 연기된 끝에 24일 원격으로 치러진다. 학생이 오전에 학교를 방문해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시험시간표에 맞

춰 푸는 '원격시험' 형태로 실시되며,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험지가 제공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악성민원인 대응 매뉴얼 우선 공감하고 자제 요구후 퇴실 조치

여직원 폭행 사건 후 제작

'우선 공감하고 욕설에 대한 자제를 3차례 요청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나가라고 요구했다. 조연과 충고는 금물. 모욕감을 숨기지 말고 인정해라.'

광주시 남구가 잇따른 악성민원을 참다못해 꼼꼼한 처리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대응키로 했다.

남구가 만든 '고질-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은 지난 3월 발생한 남구 복지지원과 여직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구청장이 직접 지시해 제작됐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남구에서는 지난 1월에도 민원인이 복지지원과에서 상담 도중 직원의 목살을 잡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도 '악성민원인에 의한 폭행과 폭행,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냈었다. 매뉴얼은 악성민원인 ▲폭언(고성-욕설-협박)민원 ▲성희롱 ▲기물파손-위험물 소지 및 지해 ▲폭행 등으로 나누고 방문-전화 민원으로 구분해 상황별 대응 요령을 적시하고 있다.

대략 공감→중단→녹음→퇴실 요구 등으로 나뉘는데 우선, "저라도 화가 났

을 겁니다"식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민원 응답이 어렵습니다"며 폭언 중단을 요청한 뒤 그래도 계속되면 "지금부터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고 공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라며 개입해 민원인을 진정시킬 것을 권했다.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안전요원의 협조를 받아 퇴실을 요청할 것을 제시했다.

남구는 녹음-녹화 요령 등도 매뉴얼에 담았고 악성민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보호 대책도 짚어넣었다.

"정장 나오라고 해!"라는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요령도 제시했다. "제가 실제 업무를 담당해 처리하고 있어요"라고 응대하다가 계속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일정 확인 뒤 연락드릴게요" 등으로 단계별로 대처토록 했다.

일각에서는 매뉴얼에만 의존, 경직된 민원 처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 관계자는 "지속된 악성 민원으로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움츠러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노동조합과 상의 끝에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86명 공개 채용

5월11일~13일 사흘간 접수

광주시교육청이 2020년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0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채용 인원은 필기시험의 경우 조리사 등 8개 직종 43명, 서류전형은 조리원 등 2개 직종 143명으로 총 186명이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수기 접수는 불가능하다.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eduworker.gen.go.kr)에서 5월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접수하며, 필기

시험은 6월13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 6월 23일 1차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합격자, 7월 25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시험공고일(4월 20일) 전일부터 1차 필기시험일(6월 13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채용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의문사항은 노동정책과(062-380-4855)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신대, 실습·실험실습 강의 5월11일부터 대면 수업

이론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동신대학교가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1학기 말까지 연장한다. 다만 실습·실험실습 강의는 오는 5월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1465개 강좌 중 이론 교양 교과목 235강좌, 전공 교과목 592강좌, 총 827강좌(56.5%)가 1학기 말까지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강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론+실습 교과목(386강좌)의 경우 이론 수업은 1학기 종강까지 비대면 수업을, 실습 수업은 5월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실험실습 교과목(252강좌)도 5월 11일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된다. 단, 코로나 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 수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올 1만 여개 일자리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광주시 북구가 구 재정투입 사업의 최우선 가치를 일자리사업으로 정하고, 올해말까지 1만 210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는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0년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재정투입 사업 중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해 광주 공립유치원 130곳 중 107곳 정원 못 채웠다

학벌없는 시민모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촉구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공립 유치원 확충에 나섰지만 정작 기존 공립 유치원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최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 130개원 가운데 학급당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07개원으로

2018년에 비해 8개원 증가했다.

만3세 5학급, 만4세 19학급, 만5세 48학급, 혼합연령 61학급 등 모두 133개 학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만3세 18명, 만4세 120명, 만5세 355명, 혼합연령 546명 등 1039명이 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나이, 환경에 맞지 않은 과도한 학급당 정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 가치를 저해하는 단수 단입제 등 안정적인 공립유치원 운영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립의 경우 초등과 대부분 병설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교구와 놀이기구, 비품마저 교실안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놀이공간은 땀뻑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유아교육이 성과중심에 매몰되다보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공립유치원 신뢰에 대한 부정과 정원 미달이 불가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없이는 학부모 외면 현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www.cdu.ac.kr

하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항공 특성화 대학-초당대학교

항공학부

-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서비스학과
- 항공드론학과
- 항공교동물류학과

창업융합학부

- 창업경영학과
- 호텔조리학과
- 외식조리창업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 국제학과

보건학부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 보건의료행정학과

공공행정학부

- 사회복지상담학과
- 군사학과
- 소방행정학과

자율전공학부

- 자율전공학부

초당대학교 CHODANG UNIVERSITY

전남 무안군 무안로 380
Tel 1577 2859